

KCC, PCM도료 개발기술 기대!

오염물질 스스로 정화 ... 산자부 신기술 인증마크에 해외특허까지

금강고려화학(KCC) 중앙연구소에서 개발한 <비오염 PCM 도료 제조기술>이 산업자원부 기술표준위원으로부터 신기술 인증 NT(New Technology) 마크를 획득했다.

KCC에 따르면, 신기술 인증마크를 획득한 기술은 빗물에 의해 오염물질이 스스로 정화될 수 있는 원리이며, 해외 특허출원으로 미국, 오스트레일리아에서 신규 특허로 등록됐고 싱가포르, 중국에서는 현재 특허심사가 진행 중이다.

새로운 기술을 이용해 생산되는 <비오염 PCM 칼라 도장 강판>은 박판(0.2-1.7mm)의 아연도금강판에 전처리 및 하도가 도장되고, 다시 위에 비오염 PCM 도료를 도장해 224℃에서 30초 동안 건조한 뒤 가공 처리해 각종 건축외장재 및 일반 가전재로 사용된다.

KCC 관계자는 PCM 도료 분야에서 외국회사와 기술제휴가 없는 독자적 기술 개발로 세계 일류상품을 개발함으로써 해외 도료시장을 선도하게 될 발판을 마련하게 됐다면서 앞으로 신기술을 응용한 제품의 수요가 크게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다.

<Chemical Journal 2003/08/13>